

Who Are True Believers?

-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rust in Rumors about Nuclear Power Energy -

Ji Hye Kim^{1#}, Seo Yong Kim²⁺

¹ A Research Associate at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afety and Risk in Ajou University, 206, World cup-ro, Youngtong-gu, Suwon, Korea

²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6, World cup-ro, Youngtong-gu, Suwon, Korea

Abstract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public attention on nuclear energy has increased and various rumors have circulated on the internet. Information from rumors increased people's fear, which forced them to resist nuclear power energy development. Thus, people tended to oppose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local areas, and doubt about the governmental policy of nuclear power energy. It is so critical to suppress intense rumor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uclear policies.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for trust in rumors about nuclear power energy. Positive determinants include perceived risk, stigma, conformity, information usefulness, Identity, anonymity, social capital, and trust in sources, while negative determinants include perceived benefit and trust in government. Our paper gives the empirical evidence for factors to induce the trust in the rumors.

Key words: nuclear power energy, rumor, trust in rumor

1. 서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관련된 다양한 괴담 또는 루머들이 대중들에게 유포되었으며, 이들 루머들은 대중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영토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됐고, 국토 절반이 이미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일본에서도 못 먹는 방사능 오염 식품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량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11배 이상이다', '호주, 캐나다 대

사관이 일본인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등은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루머들이다. 인터넷 또는 SNS를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보들이다. 그렇다면 이 중 사실인 내용은 얼마나 될까?

문제는 이와 같은 루머는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후 인터넷 상에 원자력과 관련해 다양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 The 1st author: Ji Hye Kim, Tel. +82-31-219-3341, Fax, +82-31-219-2195, e-mail, kksokjh@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Seo Yong Kim, Tel. +82-31-219-2742, Fax, +82-31-219-2195, e-mail, seoyongkim@ajou.ac.kr

양한 원자력관련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루머들이 잘못된 정보임을 여러 가지 공식자료를 통해 반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로 UN 과학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사능 유출량은 체르노빌의 약 15%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호주와 캐나다가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비자발급 기간이 늘어났을 뿐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미 각국의 정부는 방사능 문제 때문이 아니라 비용 문제로 재외공관을 구조조정 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었다.

문제는 한번 루머를 접한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번 박힌 잘못된 정보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원자력 정보가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곧 원자력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자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많은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Cha(2012)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인 2006년과 2011년에 사람들의 원자력 위험인식 수준을 비교했을 때, 기존의 막연한 위험인식이 보다 구체적인 위험인식의 형태로, 지식습득을 통한 위험인식에서 간접경험을 통한 현실적 위험인식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루머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루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사람 저사람 입에 오르내리며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다. Allport, *et. al.*(1947)은 '실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구두로 널리 퍼져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게 만드는 진술'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루머는 사람들 사이에 재 전달되면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Sunstein, 2009), 출처가 불확실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상의 루머의 경우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출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루머의 대상(Lee, 2006)과 루머가 확산되는 과정(Lee & Lee, 2012), 루머신뢰 요인 등에 대해 다루어왔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루머를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루머의 확산은 원자력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연구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 수용과 관련된 극단적으로 잘못된 인터넷 상의 정보를 믿게 만드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기존 위험연구에서 지배적인 심리측정 패러다임 또는 위험지각 패러다임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둘째, 인터넷 상의 위험정보 동조, 정보 유용성, 정체성 그리고 익명성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여 루머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뢰수준이 루머의 신뢰수준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인터넷 변수

1) 위험정보 동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동조가 있을 경우 루머를 더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ikhchandani, *et. al.*(1992)은 집단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루머를 신뢰한다면 합리적인 성향의 사람도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hn &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동조의 유무와 개인의 정보처리 성향에 따라 루머 메시지를 신뢰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동조가 있을 때는 개인의 정보처리성향에 따른 메시지 신뢰에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 동조가 없을 때는 차이가 나타났다. Kim & Yun(2015)은 사회적 동조가 루머내용의 반박이나 지지여부, 단일매체인지 복합매체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Bond(2004), Kongsompong, *et. al.*(2009)은 문화적 성향에 따라 동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문화보다는 집단주의적 문화의 국민들이 다수에 순응함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의 경우 집단의 힘이 매우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개인이 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정보의 성격에 따른 사회적 동조의 효과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위협정보에 대한 신뢰가 루머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가설 1. 위협정보에 대한 동조(confirmity)가 커질수록 루머 신뢰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정보 유용성

대상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대상 신뢰에 관한 보편적인 연구 결과는 둘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은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Davis에 따르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믿음을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인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나 직접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Davis, 1989). Lee, *et. al.*(2002)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대한 구전된 유용성이 사이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줌을 분석하였으며, Kim & Seo(2001), Park, *et. al.*(2005)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물이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사이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Koufaris & Hampton-Sosa(2004), Zhang(2011), Qureshi(2009) 등도 지각된 유용성을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Yoon(2009), Lu(2011), Han &

Windsor(2011) 등은 역으로 신뢰가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Kim & Kim(2014)은 두 변수간의 양방향적 인과관계 설정을 통한 비귀재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용성으로부터 신뢰로 이어지는 경로만이 유의미함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인터넷 상의 원자력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루머 신뢰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3) 정체성과 익명성

본 연구에서의 익명성은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체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였다. 탈 개체화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of deindividuation theory, SIDE)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정체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은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어 개인은 집단의 규범에 보다 동조하게 된다(Potmes, *et. al.*, 1998). 다시 말해 익명의 공간 하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이 약화되어 집단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에 보다 잘 휩쓸리게 된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오프라인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은 정체성은 현실세계의 정체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Lee, *et. al.*(2013)은 소비자 불매운동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익명성 하에서 소비자들은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집단적 행동에 충동적으로 따르거나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 단지 불매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원자력과 관련된 루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가진 지식과 관련 없이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 노출될 경우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느낄수록 인터넷 공간의 루머를 신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Na & Cha(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익명성이 뒷받침된 인터넷 공론장에서는 갈등이슈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방향의 집단극화를 유발하기 쉽다고 하였는데, 원자력도 상당히 극단적인 갈등이슈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설 3. 인터넷에서 느끼는 '익명성의 정도'가 크고 현실과의 느끼는 정체성 괴리가 클수록 루머 신뢰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신뢰변수

신뢰(trust)의 사전적 의미는 '믿고 의지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인의 행동이나 속성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인과의 접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사회적 안정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신뢰를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해 왔다(Lee, 2009). 최근 급속한 정보화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신뢰가 새로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회는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신뢰 또한 쌓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 네트워크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보 제공원으로써 인터넷의 역할이 커져가는 만큼 인터넷 상의 신뢰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신뢰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단순히 신뢰의 중요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신뢰가 가지는 다양한 유형과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신뢰의 유형을 구분 짓는 논의는 신뢰 대상과 속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Newton(1997)은 얇은 신뢰와 두꺼운 신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Uslaner(2002)는 신뢰를 대상에 따라 구분하였고, Stolle(2003)은 지방적 신뢰와 일반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Lee(2009)는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신뢰대상에 따라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사적신뢰는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를 지칭하며 동질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특수신뢰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확대된 일반신뢰로 다시 나뉜다. 공적신뢰는 보통 연구자들의 목적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시장조직과 같은 구체적 제도와 관련된 신뢰로 정의할 수 있다(Pagden, 1988; Lee, 1998; Lee, 1998; Park, 2004; Choi, 2004).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신뢰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보편적 다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 대상관점에서 원자력과 관련해 핵심적 추진자인 정부에 대한 신뢰, 온라인상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에 대한 정보원 신뢰 등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신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Table 1>과 같다.

일반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신뢰가 또 다른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rehm & Rahn(1997)은 기관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통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Jung & Kim(2009), Kim & Cho(2011)는 각각 정보신뢰와 특정대상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자본의 증가에 正(+)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분명하지 않은 정보원과 그로부터 나오는 불확실한 정보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뢰가 상승할수록 사회 속의 다양한 대상에 대한 신뢰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가 형성되는 공간을 '인터넷 사회'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회에 대한 사회적자본이 증가할수록 루머신뢰는 증가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Wang,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는 신뢰기제의 도움은 루머의 크기를 줄이고 루머전파속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설 4.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수록 루머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Table 1. Advance research related to trust

	Research	Research Theme	Method	Effect of Trust
Social capital	Brehm & Rahn (1997)	• The Determinants for Social Capital Formation – Focusing Individual Level	• GSS Data(1972–1994)	• Increasing the trust in institution
	Jung & Kim (2009)	• Movie Consumers' Degree of Trust and Its Fact in Online Information	• Residents around Metropolitan Areas, having regular watching experience in the movie.	• Who having trust in community they involved and had good relationships, shows good review and trust
	Lee (2009)	• Difference in general trust and government trust by gender	•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Kyunggi area(N=690)	• For male, direct effect of general trust on government trust • For female, indirect effect
	Kim & Cho (2011)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capacity on trust and usage about medical service	• National social survey based on the local–proportional strata–sampling over 19 aged people (N=1,006)	• Higher social capital having impact on trust in the doctors
Government trust	Flynn, <i>et. al.</i> (1992)	• The effect of trust in case of high radioactive facilities by structural equation method.	• Residents in Nevada, USA	• Indirect effect of trust on the attitude toward the waste facilities by mediating role of perceived risk and stigma
	Siegrist (2000)	• The role of trust in institution, perceived risk/benefit in acceptance of genetic engineering	• Switzerland (N=1,001) • Structural equation method	• Indirect of effect of trust in institution by mediating of perceived risk/benefit
	Shim, <i>et. al.</i> (2009)	• Relationships between trust in nuclear power station, perceived benefit/risk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energy	• Residents around four nuclear power stations (N=1,212)	• Direct of trust in nuclear power stations on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energy and its indirect effect mediated by perceived risk/benefit
	Jung & Kim (2014)	• Multidimensional trust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energy	• National samples (N=1,500) • the Multi–proportional strata–sampling by personal interviewing	• Positive effect of trust (in regulation, government agency, nuclear power institution, information) on acceptance on nuclear power
Trust in information source	Yang & Yang (2003)	• Effect of trust in news media on personal crisis perception •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in crisis	• Survey about university students those who participated into lecture of basic communications in Washington (N=186) • One year after 9·11 terror	• As the involvement in crisis and the trust in news media increase, the use of news media for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creases
	Shin & Chang (2010)	• The effect of credibility in information source and advertising on the effect of advertising	• Survey about University students (N=186)	• Positive (in)direct effect of credibility in information sources on advertising screening
	Shin, <i>et. al.</i> (2011)	• Mediating effect of credibility in information source •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word–of–mouth information in online on the word of mouth advertising	• Survey about netizens those which made the reply or suggestion for visiting the specific Restaurant(N=203)	• Positive effect of trust in online information sources on the acceptance of information and its mediating role in intention to make reword–of–mouth
	Yun, <i>et. al.</i> (2012)	• Trust factors about power bloggers and its effect of purchasing intention about the goods and service	• Real time users about power blogger (N=122)	• Effect of trust in power bloggers on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od and services introduced by themselves and on the purchasing intention

기존 선행연구들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직·간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 원자력 수용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Flynn, *et. al.*(1992)과 Shim(2009), Siegrist(2000)는 신뢰가 지각된 위험과 편익의 매개를 통해 대상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뢰가 지각된 위험과 편익을 포함한 위험 심리 변수들이 원자력 수용성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곧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오는 위험을 최소화

시키고 혜택은 극대화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Jung & Kim(2014)의 연구에 따르면 행위자 신뢰 중 정부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설 5.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루머신뢰는 감소할 것이다.

정보원에 대한 신뢰는 정보수용자 스스로가 다른 곳에 정보를 나르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Shin, *et. al.*, 2011), 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정보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Yun, *et. al.*, 2012). 특히 Shin & Jang (2010)은 검색광고에 많은 신뢰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정보원으로서의 검색 포털사이트를 신뢰한다면 그 사이트에 링크된 검색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인터넷 상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신뢰를 주는 인터넷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Jung & Kim(2014)의 대상유형에 따라 신뢰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정부신뢰는 다양한 원자력 수용성, 정보신뢰는 지역적 수용성에만, 전문가 신뢰는 대안적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원천(information source)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 루머신뢰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6. 정보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루머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설명

본 연구는 인터넷 상의 잘못된 원자력 정보를 믿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y	Group	Frequency(%)	Category	Group	Frequency(%)
Gender	Male	813(51,7%)	Age	20's	302(19,2%)
	Female	759(48,3%)		30's	349(22,2%)
Income	Less Than 200 Million Won	97(6,2%)		40's	397(25,3%)
	200~300	194(12,3%)		50's	342(21,8%)
	300~400	311(19,8%)		Above 60's	182(11,6%)
	400~500	262(16,7%)	Education	High school	236(15,0%)
	500~600	297(18,9%)		University Graduate	1336(85,0%)
	600~700	140(8,9%)			
	More than 700	271(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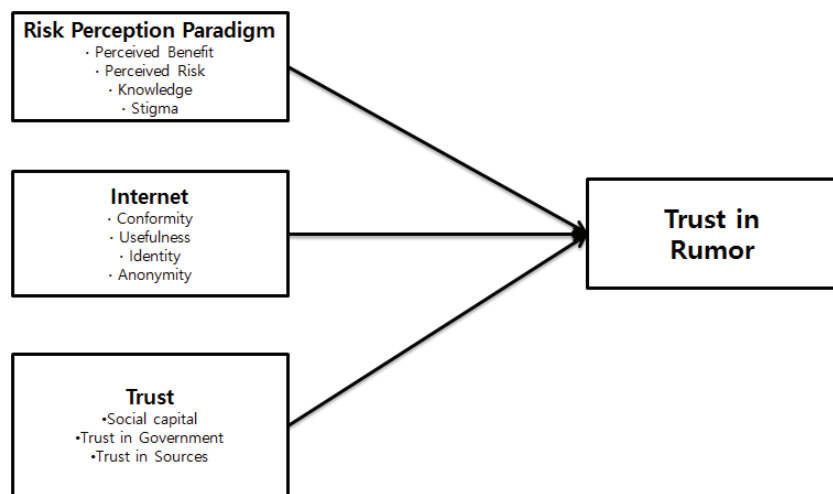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루머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 요인들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원자력 루머 신뢰는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연구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1,572 명이며,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측정문항들은 인구통계학적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은 ‘매우 아니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위험지각 변수의 경우 원자력에 대해 느끼는 편익, 위험, 감정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자력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변수에는 원자력 위험 정보에 대한 동조 성향, 인터넷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정도, 인터넷 상에서 느끼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뢰 변수의 경우 인터넷 상의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하였고 그 외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인터넷 정보원에 대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Table 3. Item and reliability

Variable	Item	Reliability
Perceived Benefit	1-1. Nuclear power energy will contribute to solving the present climate change problems	0.835
	1-2. Nuclear power energy will solve the environment problem	
	1-3. Nuclear power energy is cheap and provide stably	
	1-4. Nuclear power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erceived Risk	1-5. I personally feel the life threat from nuclear power	0.781
	1-6. Nuclear power produced the hazardous waste	
	1-7. Nuclear power is harm to people's health	
	1-8. Nuclear power station is dangerous	
Knowledge	1-9. The nuclear power stations in our countries operate with safe	0.893
	1-10. I know the organization which regulates the safety for nuclear power	
	1-11. I know to the some extent the law system about safety regulation about nuclear power	
	1-12. I can explain the issues about nuclear power well to other people	
Stigma	1-13. I well know the policy and issues related with nuclear power	0.910
	15-1. bright → dark	
	15-2. clean → dirty	
	15-3. progressive → retrogressive	
	15-4. good → bad	
	15-5. positive → negative	
	15-6. warm → cold	
	15-7. hopeful → pessimistic	
	15-8. friendly → unfriendly	
15-9. like → dislike		
Conformity about Risk information	12-10. I tend to positively agree with the opinion of the people or information that nuclear power is dangerous on the interne.	0.818
	12-11. I tend to actively accepted with the opinion of the people or information that nuclear power is dangerous on the internet	
Usefulness of Internet information	12-12. Information gathered from interne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issues about nuclear power	0.861
	12-13. Information about nuclear power, seeking from internet, help understand the main problem of nuclear power	
Identity	12-14. I often feel that the self on internet is different from one on off-line	0.878
	12-15. I frequently find my new image which is different from one in off-line	
Anonymity	12-16. Nobody know who I am, if I write on the internet	0.874
	12-17. Activities what I did in the internet, can not be known by other people	
Social Capital	20-4. I can trust in most of the internet users	0.816
	20-5. Almost all the people using internet are honest	
Trust in Sources	20-5. I can trust in the information source by which I see all of information about nuclear power	0.770
	20-6. The information providers those who supply the information about nuclear power, give more objective information	

(continued)

Trust in Government	20-7. Government has competence about safety regulation of nuclear power	0.965
	20-8. Government communicates honestly about issued related with nuclear power safety	
	20-9. Government makes efforts to accept the people's will, when it makes policies about the nuclear power station	
	20-10. Government makes fairly decision making about nuclear power policy	
	20-11. Government clearly opens the safety information about nuclear power	
	20-12. Government's safety regulation about nuclear power is sufficient to control the risk from nuclear power	
	20-13. The level of safety regulation about nuclear power by government is enough to assure the safety	
	20-14. Government trustworthily operates the nuclear power station with safety through regulation	
	20-15. Government decreases the risk from nuclear power accident by diverse regulation	
	20-16. I trust in the government's safety regulation about nuclear power station	
Trust in Rumor	21-1. I think that the bad rumor about nuclear power on the internet is almost all true.	0.802
	21-2. Most of negative rumors about nuclear power, which we face on the internet, is trust in fact	

IV. 분석결과

1.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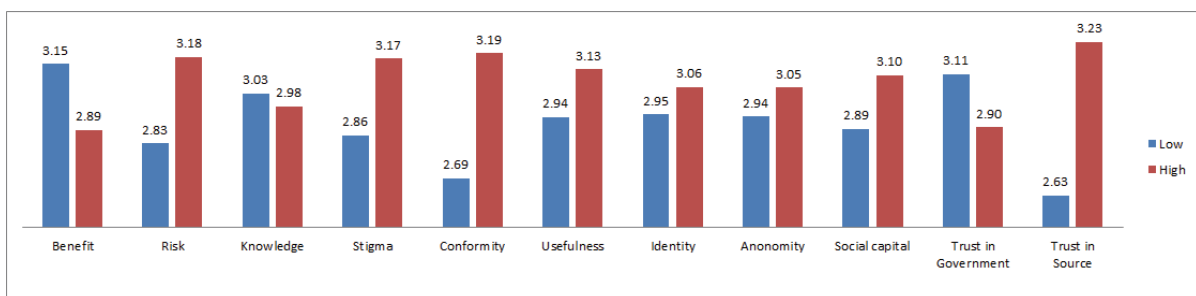
우선 변수들의 기본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t-test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test의 경우 각 독립변수들을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뒤, 집단에 따라 종속변수인 루머 신뢰가 어떻게 틀러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Figure 2>와 같다.

편의, 지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루머신뢰는 낮아지고, 지각된 위험, 지식, 낙인, 동조, 유용성, 정체성, 익명성, 사회적 자본, 정보원 신뢰가 높아질수록 루머신뢰는 높아지고 있다.

상관분석은 독립변수인 위험지각변수와 인터넷 변수 그리고 신뢰변수가 종속변수인 루머신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신뢰변수와 루머신뢰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사회적 자본 변수와 정보원 신뢰 변수는 正(+)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정부 신뢰 변수는 負(-)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신뢰변수들은 루머신뢰와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는데, 특히 정보원 신뢰의 경우 .569라는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

두 번째로 위험지각 패러다임 변수에서는 지각된 편익과 위험 그리고 감정이 루머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인 다뤄졌던 지식변수는 루머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적음은 루머신뢰와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편의와 위험의 상관계수 값은 서로 반대의 부호를 보였다. 원자력으로 인한 지각된 편익은 원자력에 대한 감정을 좋게 만드는 반면 지각된 위험은 감정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편의와 감정변수의



Benefit	Risk	Knowledge	Stigma	Conformity	Usefulness	Identity	Anonymity	Social capital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source	
7.57	-10.12	1.49	-8.90	-14.49	-5.04	-3.09	-3.17	-6.01	6.13	-17.37	T-Value
0.00	0.00	0.1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Value

Figure 2. T-test result

상관관계는 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위험과 감정변수는 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은 각각 -.544와 .497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변수들과 루머신뢰 변수는 모두 正(+)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위험정보동조와 루머신뢰 사이에서는 .430이라는 매우 높은 값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동조의 영향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상관계수 값이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계수와 비교해 본다면 그 값은 크지 않았다.

2. 인과관계 분석

다음으로 루머신뢰를 결정하는 인과요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위험지각 변수, 인터넷 변수, 그리고 신뢰변수 들을 각각 추가하는 방식으로 Model 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Model 1은 통제변수로 사용한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변수만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계수는 .169로써 즉 남성보다 여성이 인터넷 상의 루머를 좀 더 신뢰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설명변량은 약 1.3%로 그 값이 낮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심리측정 패러다임 변수인 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지식, 감정을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위험과 감정은 正(+)의 인과관계를 보였지만 편익은 負(-)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험($\beta=.240$)으로 편익($\beta=-.134$)과 감정($\beta=.111$)에 비해 높은 베타계수 값을 보였다.

Model 3에서는 인터넷 변수인 위험정보 동조, 정보 유용성, 정체성, 익명성을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인터넷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변수별로 영향의 방향을 살펴보면 위험정보에 대해 동조할수록, 인터넷이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인터

Table 4. Correlation result

	1	2	3	4	5	6	7	8	9	10	11	12
Trust in Rumor	1											
2. Social Capital	0.191 ***	1										
3. Trust in Government	-0.244 ***	0.195 ***	1									
4. Trust in Source	0.569 ***	0.335 ***	-0.037	1								
5. Perceived Benefit	-0.291 ***	-0.036	0.426 ***	-0.214 ***	1							
6. Perceived Risk	0.352 ***	-0.014	-0.474 ***	0.201 ***	-0.428 ***	1						
7. Knowledge	-0.029	0.182 ***	0.146 ***	0.080 ***	0.147 ***	-0.086 ***	1					
8. Stigma	0.301 ***	0.030	-0.456 ***	0.185 ***	-0.544 ***	0.497 ***	-0.109 ***	1				
9. Conformity to Risk Information	0.430 ***	0.093 ***	-0.313 ***	0.323 ***	-0.351 ***	0.468 ***	0.017	0.426 ***	1			
10. Usefulness of Information	0.170 ***	0.117 ***	0.040	0.156 ***	0.002	0.066 ***	0.189 ***	-0.031	0.166 ***	1		
11. Identity	0.109 ***	0.185 ***	0.068 ***	0.130 ***	0.083 ***	0.003	0.125 ***	-0.001	0.107 ***	0.071 ***	1	
12. Anonymity	0.089 ***	0.221 ***	0.065 ***	0.110 ***	0.002	0.004	-0.001	0.032	0.035	0.080 ***	0.154 ***	1

n=1,572, * $p < .05$ ** $p < .01$ *** $p < .001$

넷 상의 나의 모습과 현실 속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낄수록, 인터넷 상의 익명성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루머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정보에 대한 동조의 경우 가장 높은 베타계수 값($\beta=.271$)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동조의 영향에 대해 다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루머신뢰에 있어서 동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동조의 범위가 ‘위험정보에 대한 동조’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동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자력과 관련된 루머는 대부분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위협정보와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사회적 동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익명성과 정체성, 정

보 유용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편익과 위험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정체성($\beta=.077$)과 익명성($\beta=.058$)의 경우 루머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그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정체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탈 개체화 사회정체성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익명성과 분리된 정체성은 온라인상에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의식보다 집단 구성원으로써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 속에 떠도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좀 더 관대해지게 된다. Model 4에서는 신뢰변수인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정보원 신뢰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Table 5. Regression result

concept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control variables	(Cons)	2.750	.117		1.907	.188		1.228	.192		.721	.181	
	Gender	.169 ***	.035	.121	.076 **	.034	.054	.050	.032	.036	.044	.028	.031
	Age	-.015	.014	-.027	.026 *	.013	.047	.018	.013	.033	.010	.011	.019
	Level of Education	.018	.026	.019	.004	.024	.004	.013	.023	.013	.016	.020	.017
	Income	.003	.010	.009	.004	.009	.011	.003	.009	.008	.007	.007	.018
Perceived Risk Variables	Perceived Benefit				-.104 ***	.022	-.134	-.086 **	.021	-.111	-.021	.019	-.027
	Perceived Risk				.228 ***	.026	.240	.133 **	.026	.140	.090 ***	.023	.094
	Knowledge				.022	.019	.028	-.022	.018	-.028	-.047 ***	.016	-.060
	Stigma				.103 ***	.027	.111	.049 *	.027	.053	.023	.024	.025
Internet Variables	Conformity to Risk Information							.225 ***	.022	.271	.132 ***	.020	.159
	Usefulness							.112 ***	.023	.110	.073 ***	.020	.071
	Identity							.061 ***	.018	.077	.029 *	.016	.036
	Anonymity							.043 ***	.017	.058	.016	.015	.021
Trust Variables	Social Capital										.036 *	.021	.038
	Trust in Government										-.100 ***	.021	-.117
	Trust in Source										.476 ***	.023	.456
F value		6.219			37.654			43.469			80.107		
R-squared		0.016			0.162			0.251			0.436		
Adjusted R-squared		0.013			0.157			0.245			0.430		

n=1,572,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자본과 정보원신뢰는 正(+)의 인과관계를, 정부 신뢰는 負(-)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설명변량은 43.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Model 3에서 Model 4로 이동할 때 설명변량이 커진 것으로 보아 Model 4에서 추가하였던 신뢰 변수들이 루머신뢰 결정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뢰가 신뢰로 이어지고 있음은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인 수준으로 신뢰를 구분했을 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신뢰변수 중 가장 높은 계수 값을 보인 것은 정보원신뢰($\beta=.456$)였고, 정부신뢰($\beta=-.117$)와 사회적 자본($\beta=.038$)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 신뢰(사회자본)는 구체적 신뢰(정부신뢰, 정보원신뢰)에 비해 루머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위협정보동조($\beta=.159$), 위협($\beta=.094$), 인터넷이용성($\beta=.071$), 지식($\beta=-.060$)보다도 계수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일반신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신뢰의 증가만으로는 루머신뢰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보원 신뢰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신뢰들을 거쳐 루머신뢰로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

기 때문에 정보원신뢰를 통제했던 Model 4에서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정보원신뢰 변수의 베타계수는 다른 모든 변수의 베타계수 값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Shin & Chang(2010)의 결과처럼 정보원에 대한 신뢰는 정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꿔줄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부신뢰가 정보원신뢰뿐만 아니라 위협정보동조에 비교해서도 낮은 베타계수 값을 보인 것은 루머신뢰와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를 신뢰한다 하여도 지각된 편익과 위협, 루머의 노출정도에 따라 루머를 신뢰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의 객체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신뢰가 정부와 같은 공식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루머를 신뢰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해준다.

3. 조절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루머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들과 신뢰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Table 5>의 Model 4에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

Table 6. Interaction of trust in rumor information

Variables	Model 1 : Identity - Trust in sources					
	B	S · E	Beta	B	S · E	Beta
Identity(MC)	0,029	0,016	0,036	0,029	0,016	0,036
Trust in Source(MC)	0,476***	0,023	0,456	0,469***	0,023	0,45
Interaction	-			-0,053*	0,021	-0,049
F	80,107***			75,768***		
R square	0,436			0,438		
R square change	-			0,002		

Variables	Model 2 : Knowledge - Social capital					
	B	S · E	Beta	B	S · E	Beta
Knowledge(MC)	-0,047**	0,016	-0,06	-0,048**	0,016	-0,062
Social Capital(MC)	0,036	0,021	0,038	0,035	0,021	0,037
Interaction	-			0,04*	0,019	0,041
F	80,107***			75,538***		
R square	0,436			0,437		
R square change	-			0,001		

Variables	Model 1 : Identity - Trust in sources			Variables	Model 2 : Knowledge - Social capital		
	Low B=-0,409***	s,e=0,021	t=-19,610		Low B=-0,077***	s,e=0,022	t=-3,553
Simple Slope Test	Mid B=-0,096***	s,e=0,018	t=-5,383	Mid B=-0,048**	s,e=0,016	t=-2,964	
	High B=0,217***	s,e=0,021	t=10,318	High B=-0,019	s,e=0,021	t=-0,905	
	Effect Size	0,002		Effect Size	0,004		

석한 결과 두 가지의 경우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각 상호작용 항의 통계적 유의성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기울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정체성은 정보원 신뢰와 상호작용이 존재했고 지식은 사회적자본과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상호작용 항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단순주효과를 <Figure 3>, <Figure 4>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다. <Figure 3>의 경우 정보원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정체성이 높아짐에 따라 루머신뢰도가 증가하지만, 정보원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정체성이 높아짐에 따라 루머 신뢰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루머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정보원 신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해주고 있다. <Figure 4>는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지식증가에 따른 루머신뢰 감소효과가 억제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지식에 대한 믿음을 대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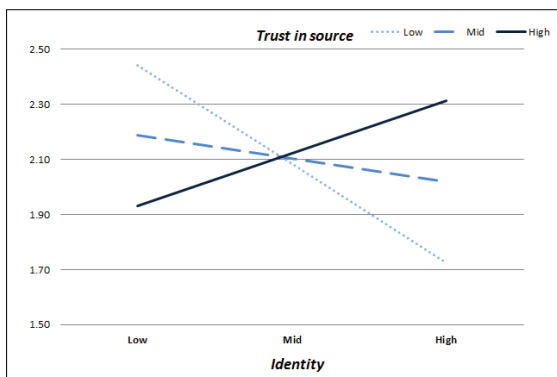


Figure 3. Interaction of identity and trust in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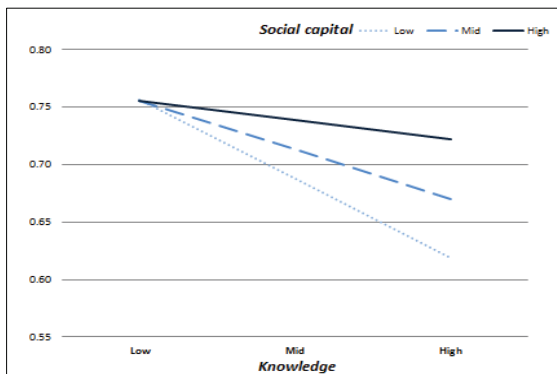


Figure 4. Interaction of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V. 연구요약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의 원자력과 관련된 루머를 둘러싼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루머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신뢰간의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신뢰의 개념을 포괄적 수준의 일반신뢰(사회적 자본)와 정보원신뢰와 정부신뢰라는 구체적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상의 원자력 루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각된 위험, 지식, 사회적 동조, 정보 유용성, 정체성,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정보원신뢰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원신뢰와 사회적 동조 변수의 Beta 값이 제일 높게 나온 것으로 가장 유의미함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동조는 정보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된 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정보라는 특정한 정보에 대한 동조도 정보수용에 있어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이전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지각된 편익과 감정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원자력 루머는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위험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 만큼 원자력에 대해 위험을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나 지각된 편익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정보원 신뢰 등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신뢰수준이 루머를 신뢰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였다. 즉 신뢰가 또 다른 신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정보원의 신뢰가 가장 높은 베타 값을 보였다는 것은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를 신뢰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신뢰하게 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원 신뢰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자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신뢰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정보원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독립변수와 루머신뢰가 조절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선 정보원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정체성이 높아짐에 따라 루머신뢰도가 증가하지만, 정보원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정체성이 높아짐에 따라 루머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지식증가에 따른 루머신뢰 감소효과가 억제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지식에 대한 믿음을 대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루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변수들 간 관계구조에 대한 탐색적 차원의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Ji Soo and Won Ji Lee. 2011. Effect of Social Conformity and Individuals' Information Processing Tendencies on Trust in Rumor Messages. *Research of Communication Science*. 11(4): 296-320.
- Allport, G. W. and L. J. Postman. 1947. *The Psychology of Rum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Bickchandani, S., D. Hirshleifer, and I. Welch. 1992. A Theory of Fads, Fashion, Custom, and Cultural Change as Informational Cascad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5): 992-1026.
- Bond, R. 2004. Conformity across Cultures.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1: 457-468.
- Cha, Yong Jin. 2012. Change Trend and Perception of Risk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 General Population in Metropolitan Area. *Korean Policy Study*. 12(1): 1-20.
- Choi, Jong Ryul. 2004. Social Capital from the Integrative Perspective of Trust and Reciprocity: Construction of Ideal Types of Social Capital. *Korea Journal of Sociology*. 38(6): 97-132.
-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 319-340.
- Flynn, J., W. Burns, C. K. Mertz, and P. Slovic.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 417-429.
- Han, B. and H. Winsor. 2011. User's Willingness to Pay on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51(4): 31-40.
- John, Brehm and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Jung, Jae Ki and Go Eun Kim. 2009. An Analysis Study on the Levels and Determinants of Trust about the Online Word-of-Mouth in Movie Consumers. *Paper of Social Science*. 12: 155-191.
- Jung, Ju Yong and Seo Yong Kim. 2014. Exploring Multidimensionality of Trust and Social Acceptance toward Nuclear Power Energy. *Korea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4): 51-78.
- Kim, Gil Yong and Byong Hee Cho. 2011. The Components of Trust in Doctors in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29: 129-152.
- Kim, Jin Ho and Gi Mun Kim. 2014. Investigating the Causal Directionality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Trust in Online Shopping Context. *Korean Journal of Internet-Electronic Commerce*. 14(3): 1-14.
- Kim, Myoung So and Hwa Jung Seo. 2001. Testing the Acceptance and Extension of New-technology in E-Commerce. *Korea Journal of Psychology: Industrial and Organization*. 14(1): 77-100.
- Kongsompong, K., R. T. Green, and P. G. Patterson. 2009. Collectivism and Social Influence in the Buying Decision: A Four-country Study of Inter-and Intra-national Differences.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17(3): 142-149.
- Koufaris, M. and W. Hampton-Sosa. 2004. The Development of Initial Trust in an Online Company by New Customs. *Information & Management*. 41(3): 377-397.
- Lee, H. S. 2006. *Rumors Behavior in Cyberspace*. Meeting of Korea Speech & Communication Association, Pusan.

- Lee, Ho Geun, Seung Chang Lee, and Hun Cheol Lee. 2003. An Empirical Study on the Antecedents of Trust Building and its Effects on Internet Auc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Management*. 32(1): 149-180.
- Lee, Jae Hyuck. 1998. Social Structurization of Tru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2(2): 311-335.
- Lee, Jae Yeol. 1998. Democracy, Social Trust, and Social Capital. *Ideology*. Summer. 37: 65-93.
- Lee, Soo In. 2010.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Trust and Government Trust and the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4): 162-203.
- Lee, Won Jun and Han Suk Lee. 2012. Acceptance and Spread of Negative Rumors Consumer Brands. *Asia Marketing Journal*. 14(2): 65-96.
- Lee, Yoon Jae, Nyung Soo Kang, and Han Suk Lee. 2013. Influence of Anonymity to Consumer's Boycott Inten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Comsumer Problem Studies*. 44(2): 27-44.
- Lu, Y., S. Yang, P. Y. K. Chau, and Y. Cao. 2011. Dynamics between the Trust Transfer Process and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ervices: A Cross-Environment Perspective. *Information & Management*. 48(8): 393-403.
- Michael, Sjejrjst. 2000.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Risk Analysis*. 20(2): 195-204.
- Na, Eun Yeong and Yu Ri Cha. 2012. Factor to Determine the Group Polarization in Internet: Focusing the Anonymity in Sphere of Public Discourse, Network Mob, Individual Cult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6(1): 103-121.
- Pagden, Anthony. 1988. The Destruction of Trust and its Economic Consequence in the Case of Eighteenth-century Naples. 127-141. In D. Gambetta(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lackwell.
- Park, Byoung Jin. 2004. Confidence in Government in Korea: Modern and Postmodern Factors. *Civil Society and NGO*. 2(2): 87-118.
- Park, Sang Kyu, Gu Hyun Won, and Hong Sik Ham. 2005. A Effect of Internet Shopping Mall'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on Trust, Satisfaction and Loyalty.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22(1): 83-101.
- Potmes, T., R. Spear, and M. Lea. 1998. Breaching or Building Social Boundaries? Side Effects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25: 689-715.
- Qureshi, I., Y. Fang, E. Ramsey, P. McCole, P. Ibbotson, and D. Compeau. 2009. Understanding Online Customer Repurchasing Inten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Trust-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Two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8(3): 205-222.
- Shim, Jun Seop. 2009. Trust in Nuclear Power Plant, Perceived Risk and Benefit, and Acceptance.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8(4): 93-123.
- Shin, Dong Hee and Woo Sung Chang. 2010. A Study of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vility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Advertising Credibility on the Process of Internet Keyword-Advertising Effect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7(1): 139-170.
- Shin, Seo Young, Bum Jun Lee, and Sung Mi Cha. 2011. Impact of Online Restaurant Information WOM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 of WOM-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ource-Credibility.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24(2): 217-225.
- Sunstein, C. R. 2009. *On Rumors: How Falsehoods Spread, Why We Believe Them, What Can Be Don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Wang, Y., Yang, Xiao-Yuan, Han, Yi Liang, and Wang Xu An. 2013. Rumor Spreading Model with Trust Mechanism in Complex Social Networks. *Communications in Theoretical Physics*. 59(4): 510-516.
- Yang, Seong Kwan and Sung Un Yang. 2003. The Effect of Perceived Credibility of the News Media on Risk-Related Perceptions: Involvement in Risk as a Moderator of the Effect on Risk-Related Perceptio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279-305.
- Yoon, C. 2009. The Effects of National Culture Values on Consumer Acceptance of E-Commerce: Online Shoppers in China. *Information & Management*. 46(5): 294-301.
- Yun, Hae Jung, Seung Hye Ahn, and Choong C. Lee. 2012. Determinants of Trust in Power Blogs and Their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411-419.
- Zhang, Y., Y. Fang, K. K. Wei, E. Ramsey. P. McCole, and H.

Chen. 2011. Repurchase Intention in B2C E-Commerce: A Relationship Quality Perspective. *Information & Management*. 48(6): 192-200.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길용, 조병희. 2011. 의사 신뢰의 구성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9: 129-152.
- 김명소, 서화정. 2001. 전자상거래에서의 신기술 수용성 모형 검증 및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4(1): 77-100.
- 김민정, 윤영민. 2015. 복합매체 이용과 사회적 동조가 온라인 상에 루머신뢰 및 루머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PR 학회*. 19(2): 96-119.
- 김진호, 김기문. 2014. 온라인쇼핑 환경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 사이의 인과관계 방향성에 관한 검토.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학회*. 14(3): 1-14.
- 나은영, 차유리. 2012.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균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6(1): 103-121.
- 박병진. 2004.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근대적 요인과 탈 근대적 요인. *시민사회와 NGO*. 2(2): 87-118.
- 박상규, 원구현, 함홍식. 2005. 인터넷 쇼핑몰의 지각된 이용편리성과 유용성이 신뢰, 만족,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영과학회*. 22(1): 83-101.
- 신동희, 장우성. 2010. 인터넷 검색 광고 효과과정에서 정보원 신뢰도의 영향력 및 광고 신뢰도의 매개효과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1): 139-170.
- 신서영, 이범준, 차성미. 2011. 외식 정보 온라인 구전 특성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정보원 신뢰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4(2): 217-225.
- 심준섭. 2009.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18(4): 93-123.
- 안지수, 이원지. 2011. 사회적 동조와 개인의 정보처리 성향이 루머 메시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1(4): 296-320.
- 양성관, 양성운. 2003.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사용자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 위기에 관한 수용자의 관여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6): 279-305.
- 윤혜정, 안승혜, 이중정. 2012. 파워블로그의 신뢰 요인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411-419.
- 이수인.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민주화를 향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 및 정보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162-203.
- 이운재, 강명수, 이한석. 2013. 온라인 소비자 불매운동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온라인 익명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4(2): 27-44.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여름호. 37: 65-93.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2): 311-335.
- 이호근, 이승창, 강훈철. 2003. 인터넷 경매의 신뢰형성요인과 경매참여의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2(1): 149-180.
- 정재기, 김고은. 2009. 영화소비자들의 온라인 구전정보에 대한 신뢰정도 및 신뢰요인 분석연구. *사회과학논총*. 12: 155-191.
- 정주용, 김서용. 2014.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8(4): 51-78.
- 차용진. 2012. 원자력위험인식 변화추세 및 정책적 함의: 수도권 일반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1): 1-20.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6): 97-132.

누가 진정으로 믿는가?

– 원자력 에너지 관련 루머 신뢰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

국문초록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증가하였고, 인터넷 상에 서는 온갖 종류의 루머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잘못된 정보들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원자력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원자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많은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극단적으로 잘못된 루머는 원자력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에너지 수용과 관련된 극단적으로 잘못된 루머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분석결과 위험지각 요소에서는 지각된 위험(+)/편익(-), 낙인(+), 인터넷 요소에서는 동조(+), 정보유용성(+), 정체성(+), 익명성(+), 신뢰요소에서는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정보원 신뢰(+)) 등이 루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원자력 수용성, 인터넷 루머, 루머 신뢰

Profiles **Ji Hye Kim** : She is a research associate at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afety and Risk in Ajou University(kksokjh@naver.com).

Seo Yong Kim : He received his doctorat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Korea University in 2004.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Ajou University since 2004(seoyongkim@ajou.ac.kr).